

KOSDAQ | 식품,음료,담배

우리손에프앤지 (073560)

실적안정성이 부각되는 양돈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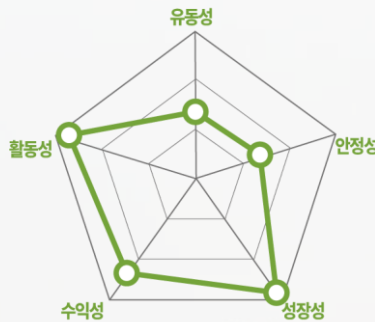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우리손에프앤지는 육돈 전문 기업으로 비육돈 생산·사육·판매 및 가공·유통 전 과정을 수직계열화한 업체
- 높은 생산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으로 동사는 지난 10년 평균 영업이익률 10.3%, 순이익률 7.2%로 주요 경쟁사 대비 높은 실적 안정성 보임
- 방역 규제 강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영세 농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동사의 시장점유율 점진적으로 확대 예상
- 2025년과 2026년에도 돈육가격이 2024년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이익 이어갈 것으로 전망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필수소비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3Q25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필수소비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Analyst 조영환 yh.cho@kirs.or.kr

RA 박규연 park.gyuyeon@kirs.or.kr

원가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에 기반한 실적 안정성

최근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0.3%, 순이익률은 7.2%로 주요 경쟁사 대비 높은 실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동사는 관계사인 팜스토리와 이지팜스를 통해 전용 사료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 직영 및 위탁 농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있음. 또한 GGP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체계적인 유전자 관리와 수직계열화된 생산 구조를 기반으로, 품질이 우수한 비육돈을 균일한 품질로 대량 생산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견조한 돈육소비와 함께 농장의 대형화 진행 중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외식 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국내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 중. 반면 방역 규제 강화와 생산비 상승 부담이 확대되면서 영세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사와 같은 대형 업체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 동사의 시장 점유율(판매두수기준)은 1.6%에 불과한 수준으로, 향후 점유율 확대에 따른 점진적 매출 확대가 기대됨

2025년과 2026년 모두 높은 돈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 예상

2025년과 2026년 영업이익은 각각 398억원, 333억원으로 2024년 275억원, 과거 5년 평균 262억원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25년 폭염 및 질병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하면서 평균 돼지 도매가격이 2024년 대비 9.2% 상승한 데 이어, 2026년에도 공급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2024년 대비 약 3%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에 따라 돈가 상승에 따른 동사의 실적 레버리지 효과로 과거 대비 높은 이익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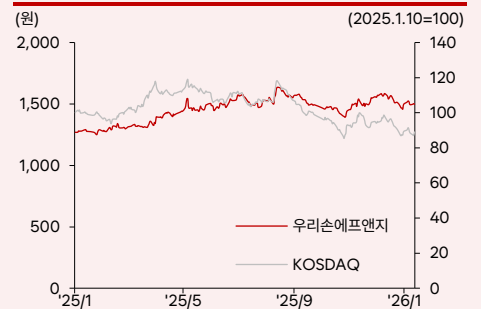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억원)	2,869	2,793	2,927	2,861	2,940
YoY(%)	13.0	-2.6	4.8	-2.2	2.8
영업이익(억원)	285	46	275	398	333
OP 마진(%)	9.9	1.7	9.4	13.9	11.3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50	15	151	257	210
EPS(원)	361	22	218	372	303
YoY(%)	-96	-93.8	872.5	70.9	-18.6
PER(배)	5.0	68.3	5.7	4.1	5.0
PSR(배)	0.4	0.4	0.3	0.4	0.4
EV/EBITDA(배)	3.8	6.1	3.1	2.1	1.9
PBR(배)	0.5	0.4	0.3	0.3	0.3
ROE(%)	10.3	0.6	5.3	7.9	6.1
배당수익률(%)	2.8	1.6	5.6	4.6	4.7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23)	1,501원
52주 최고가	1,636원
52주 최저가	1,250원
KOSDAQ (1/23)	993.93p
자본금	346억원
시가총액	1,039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69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3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2억원
외국인지분율	1.88%
주요주주	이지홀딩스 외 7인
	52.50%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6	0.5	17.5
상대주가	-99	-177	-14.4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영업이익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회사 개요

우리손에프앤지는 육돈 전문 기업으로, 양돈의 생산·사육·판매 및 가공·유통 전 과정을 수직계열화한 업체

우리손에프앤지는 육돈 전문 기업으로, 양돈의 생산·사육·판매 및 가공·유통 전 과정을 수직계열화한 업체이다. 당사는 2001년 도드람비티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이지바이오(현 이지홀딩스)에 인수되며 그룹 내 양돈 사업의 핵심 법인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2011년 사료사업 부문을 분할해 계열사인 도드람비엔에프(현 팜스토리)로 이관하면서 양돈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확립했으며, 2016년에는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당사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돈업에 진출하며 생산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후 외형 확장을 추진해 왔다. 종돈 및 사육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문경·부여·창진 등 전국 주요 지역의 농장들을 인수하며 생산 규모를 확대했다. 이러한 확장 과정에서 당사는 직영농장을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위탁농장을 병행하는 구조를 통해 사육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사는 2025년 3분기 기준 직영농장 21개와 다수의 위탁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강원도 지역의 핵심 거점인 강원LPC를 인수하며 가공유통사업을 새롭게 사업 영역에 편입했다. 강원 LPC는 도축과 가공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도 내 핵심 축산물 종합처리장으로, 당사는 이를 통해 기존 양돈 사업에서 생산된 물량을 자체적으로 도축하고 가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해당 인수 이후 당사는 종돈 - 사육에 이어 도축 - 가공까지 연결되는 양돈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우리손에프앤지의 경쟁력은 독자적인 유전자원을 통한 높은 생산성에 기반한다. 당사는 자체 종돈 브랜드인 이지종돈을 운영하고 있으며, FAO DAD-IS(국제식량농업기구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제주갈갈흑돈 등 차별화된 종자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종돈 관리 체계와 사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 양돈 농가 평균을 상회하는 양돈 생산성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 당사는 비육우(肥肉牛), 가금, 신생에너지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으로는 2006년부터 필리핀 시장에 진출해 Easybio Philippines 법인을 중심으로 양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손에프앤지 연혁

2001~2010	2011~2014	2015~
<p>2001 회사설립</p> <p>2002 사료공장 건설</p> <p>2003 이지바이오 편입</p> <p>2006 필리핀 해외 현지법인 투자 (DODRAM FARMS Philippines, Corp)</p> <p>2008 필리핀 해외 현지법인 투자 (EASYBIO Philippines, Inc)</p> <p>2010 필리핀 해외 현지법인 투자 (IFEED Philippines, Inc) 필리핀 해외 현지법인 투자 (Southern Peak Realty Corp)</p>	<p>2011 양돈, 사료사업 분할</p> <p>2012 흡수합병 (진안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ACCP 인증 (본점 및 지점) 대표이사 변경 (조창현) 본점이전 (전남 나주) 상호변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손홀딩스) 필리핀 해외 현지법인 합병 (DODRAM FARMS Philippines, Corp / IFEED Philippines, Inc → EASYBIO Philippines, Inc)</p>	<p>2015 흡수합병 (주식회사 강원LPC)</p> <p>2016 코스닥 상장 상호변경 (우리손에프앤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필리핀 해외 현지법인 합병 (IFEED Isabela, Inc → EASYBIO Philippines, Inc)</p> <p>2017.03 각자 대표이사 유대훈 취임 (조창현, 유대훈)</p> <p>2018.03 각자 대표이사 편명식 취임 (조창현, 편명식)</p> <p>2018.06 우리손김제농장 지점 폐지</p> <p>2022.06 우리손에프앤지 기흥지점 지점설치</p> <p>2023.03 대표이사 변경(조창현, 조광식 각자대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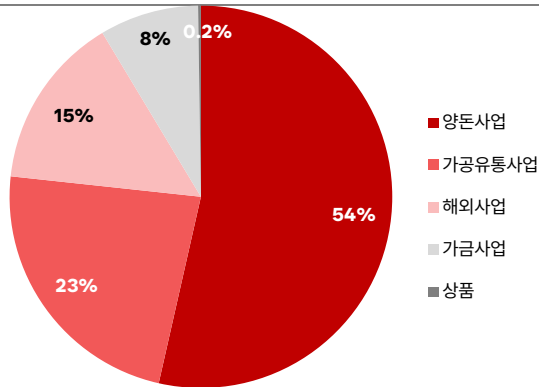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매출 비중은 양돈사업 55%
 가공유통사업 23%,
 기타 사업 22%로,
 주로 돈육 관련 매출로 구성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우리손에프앤지의 매출 구성은 양돈사업 54%(비육돈 49%, 비육우 3%, 기타 2%), 가공 유통사업 23%, 기타 사업(해외사업, 가공사업, 상품) 23%로, 양돈사업 및 가공유통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우리손에프앤지 사업부별 비중(3Q25 기준)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양돈사업

우리손에프앤지는 핵심 사업으로 양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비육돈(고기용 돼지) 매출이 양돈사업 전체 매출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비육돈은 B2B 형태로 판매되며, 주로 식육처리업체 또는 경매공판장으로 출하된다. 동사는 효율적인 비육돈 생산과 균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종돈(씨돼지) 개량부터 비육돈 사육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GGP(핵돈군)-GP(중식돈군)-PS(비육돈군)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생산 체계로 수직계열화하였다.

양돈 산업은 유전자 가치가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로 전달되는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되며, 통상적으로 최상단부터 GGP-GP-PS 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는 명확한 역할을 가지며, 상위 단계일수록 유전적 개량과 선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상위 단계의 종돈군 개량 수준이 우수할수록 하위 단계로 전달되는 유전적 품질이 개선되어, 최종적으로 비육돈의 생산 효율성과 육질 수준이 함께 향상되기 때문이다.

피라미드 최정점에 위치한 GGP(Great Grand Parent)는 증조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돼지로, 유전적 개량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순종 집단이다. 이 단계에서는 성장 속도, 산자수, 사료효율, 육질 등 돼지의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유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GGP는 가장 엄격한 위생 기준을 갖춘 핵돈장에서 사육되며, 개체별 생산성 데이터와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철저한 선발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선발된 우수 개체들은 혈통을 유지하거나 하위 단계인 GP 생산에 활용된다. 동사는 약 500두 규모의 GGP 농장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요크셔(성장력), 랜드레이스(다산력), 듀록(육질)을 각각 순종으로 개량 및 관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GP 돼지를 생산해 동사가 소유한 GP 농장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GP(Grand Parent)는 GGP에서 선발된 유전자를 기반으로, 이를 대량으로 증식 확산하기 위한 단계다. GGP로부터 이어받은 우수한 유전자를 유지하면서, 실제 농가에 공급 가능한 부모 세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순종을 교배해 번식력이 뛰어난 1대 잡종(F1) 모돈을 생산하며, 이는 다음 단계인 PS의 핵심 자원이 된다. 동사는 자체 개량한 요크셔와 랜드레이스를 교배해 성장력과 다산력이 모두 우수한 F1 모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자체 브랜드인 이지종돈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산된 이지종돈은 비육돈 생산에 활용되는 모돈으로서, 동사 직영농장 및 계약 위탁농장으로 공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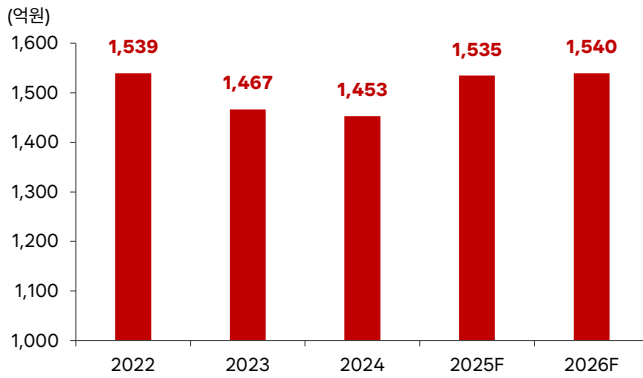
PS(Parent Stock)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단계로, 일반 양돈 농장에서 사육된다. GP에서 생산된 F1 모돈에 육질 특성이 우수한 수컷을 교배해 비육돈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유전적 완성도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핵심적으로 작용하며, 사료효율, 증체 속도, 출하 성적 등이 농가 수익과 직결되는 주요 성과 지표로 관리된다. 동사는 직영농장 및 위탁농장에서 자체 개발한 F1 모돈 이지종돈과 부돈 켄토듀록을 교배해 비육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연간 약 29만두 수준의 비육돈을 출하하고 있다.

우리손에프앤지 유전자 사업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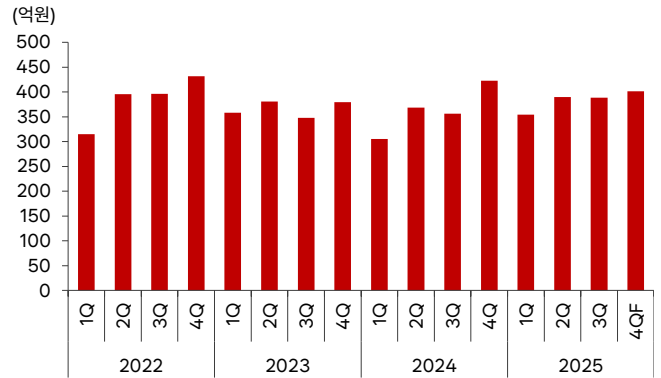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양돈사업 연간 매출액 추이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양돈사업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가공유통사업

가공유통사업은 강원LPC를 통해 비육돈을 도축한 후 가공이 완료된 지육을 직접 판매하거나, 비육돈의 도축 및 가공을 대행하는 형태로 영위되고 있다. 주요 고객은 수도권 및 강원도 지역의 육가공 업체와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2B 거래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우육과 관련된 매출은 전체 가공유통사업 매출의 5% 이내로 추산되며, 매출의 대부분은 돈육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손에프앤지는 2015년 12월 강원LPC를 흡수합병하며 사업 영역을 도축 및 가공 부문까지 확장하였다. 강원LPC는 강원도 내 대표적인 축산물 종합처리시설로, 원료육의 도축부터 가공·포장·유통 전 공정을 수행하는 통합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업 구조로 인해 가공유통사업은 양돈사업 대비 돈가와 사료가격 변동에 따른 실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전사 실적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수익 구조의 안정성을 높였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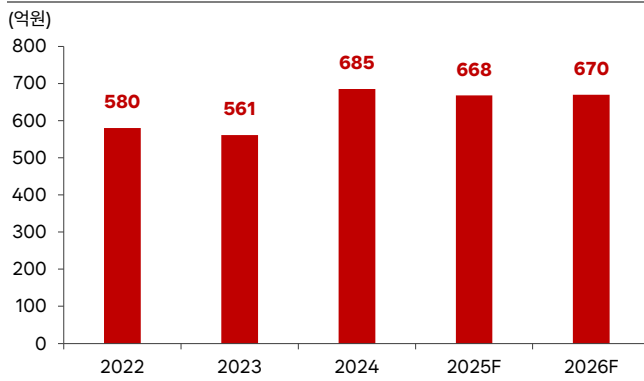
이외의 사업부로는 가공사업 및 해외사업 등이 있으며,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은 해외사업이 15%, 가공사업이 8%를 차지한다. 우리손에프앤지는 2002년 필리핀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는 Easybio Philippines 법인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농장 2개를 운영하며 사료 제조업과 축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손에프앤지 가공유통사업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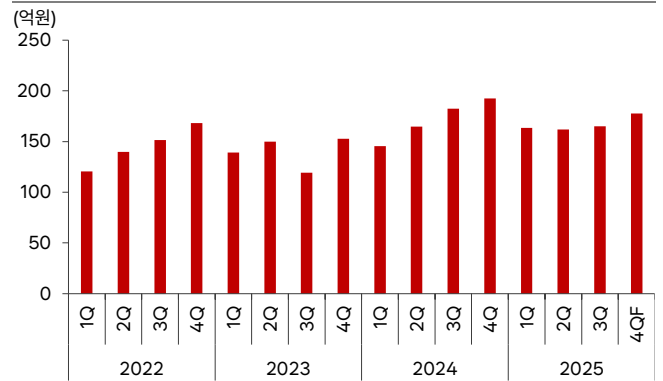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가공유통사업 연간 매출액 추이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가공유통사업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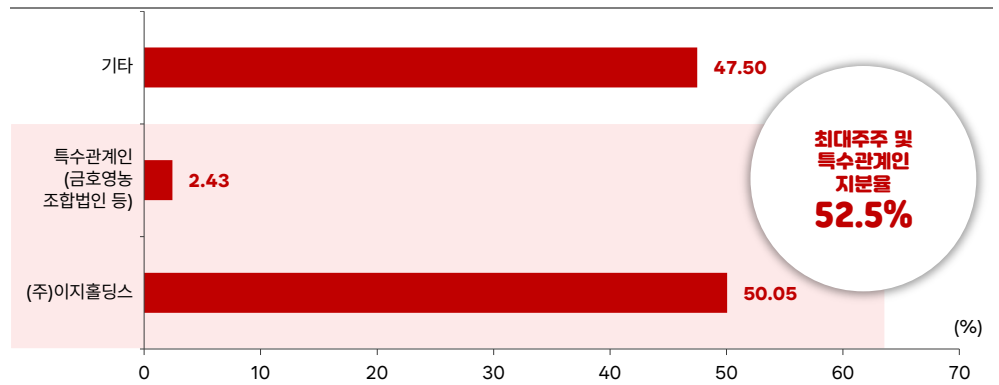
주주구성

**3Q25 최대주주 이지홀딩스가
지분율 47.0%→50.1%로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우리손에프앤지는 2025년 3분기 기준 최대주주인 이지홀딩스가 지분율 50.1%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금호영농조합법인 외 6명)의 지분 2.4%를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52.5%이다. 이에 따라 동사는 지주회사인 이지홀딩스의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다. 특히 2025년 3분기 중 이지홀딩스가 우리손에프앤지의 지분율을 47.0%에서 50.1%로 확대하며 과반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 지배력은 한층 공고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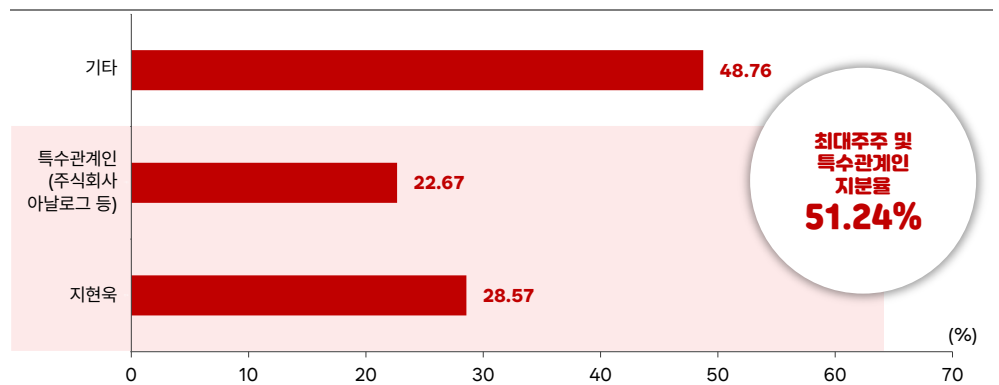
지배회사인 이지홀딩스 역시 2025년 3분기 기준 최대주주인 지현욱 회장이 2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 법인인 아날로그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 22.7%를 포함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51.2%로 과반 이상의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손에프앤지 주주현황(3Q25 기준)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모회사) 주주현황(3Q25 기준)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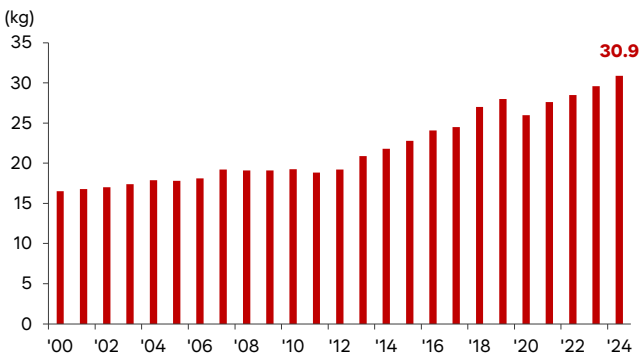
1 견조한 돈육 소비와 농장의 대형화

1인당 돈육 소비량 지속 증가 중

2022년 기준 국내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8kg으로 사상 처음 쌀 소비량(56kg)을 상회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돼지고기는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3대 육류(돼지·소·닭) 소비량 가운데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3%에 달하며, 육류 소비 내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1인당 돈육 소비량은 2015년 22.8kg에서 2024년 30.9kg으로 증가하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돈육 소비량 또한 같은 기간 117만 톤에서 160만 톤으로 연평균 3.1%의 성장세를 보이며 10년 전 대비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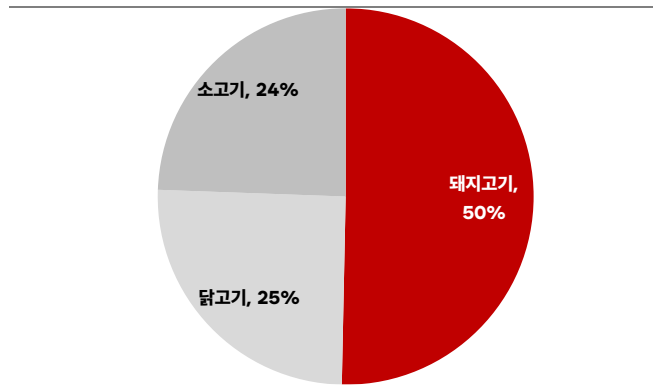
이러한 소비 증가는 국민 소득 상승과 더불어 외식 및 간편식 중심의 식문화 확산, 냉장·냉동 유통망의 고도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특히 맛별이 가구 증가와 배달 시장의 성장은 돼지고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대형 유통 채널의 신선식품 공급 역량 강화는 돈육 소비의 일상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 결과 돼지고기는 가격 변동이나 경기 흐름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현재 국내 축산물 소비 구조 전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대 육류(돼지·닭·소) 소비량 비중(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정부 규제 강화, 생산비 증가 등으로 영세 농가를 중심으로 농장 수 지속 감소 중

다만 소비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돼지고기 공급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양돈 산업은 영세 농가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악취 문제 등을 둘러싼 지역 주민 반발과 정부의 환경과 입지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신규 진입과 기존 농장의 사육 규모 확대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대형 농장에 비해 방역·시설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농가는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나 각종 가축 질병 발생 시 대응 능력이 대형 업체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 사육두수 감소로 직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1,100만 두를 하회하며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진 폭염과 함께, 2025년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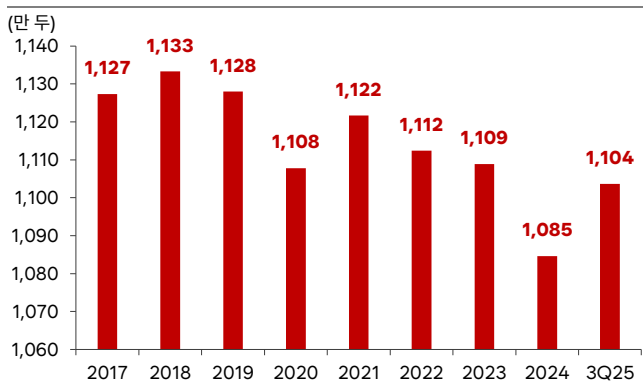
를 발발한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의 질병 확산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생산비 증가 역시 공급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가 상승은 제한적인 반면, 비육돈 마리당 생산비는 구조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농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육돈 마리당 생산비는 2015년 30.7만원에서 2024년 42.1만원으로 약 37%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마리당 평균 판가는 약 12% 상승에 그쳤다. 사료비를 비롯한 사육 관련 비용 상승과 함께 환경·방역 규제 강화, 시설 투자 부담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영세 농가의 수익성은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가의 비육돈 마리당 순이익은 2024년 기준 3.2만 원으로, 2015년 9.7만 원 대비 68%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는 사육 농가의 폐업으로 이어지며, 2017년 1분기 말 6,387개였던 국내 돼지 농장 수는 2025년 3분기 말 5,477개로 14% 감소했다.

이와 같은 공급 구조 변화는 양돈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양돈 관리 역량과 규모를 갖춘 대형 업체들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체계적인 사육 관리 시스템과 질병 대응 역량, 안정적인 출하 구조를 확보한 기업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출하 두수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농장을 기반으로 한 운영을 통해 비용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생산비 상승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양돈 산업은 영세 농가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점진적으로 대형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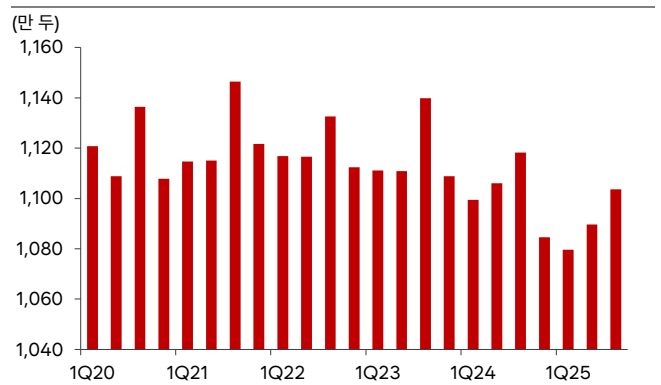
이러한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손에프앤지와 같은 대형 업체의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동사의 2024년 기준 국내 비육돈 생산 실적은 30.5만 두로 업계 3위 수준이나, 시장점유율은 판매두수기준 약 1.6%에 불과하다. 영세 농가 중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동사는 농장 인수를 통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점유율 상승 가능성이 높다.

연간 돼지 사육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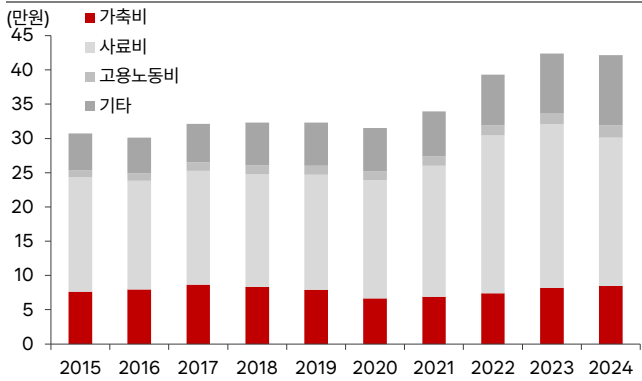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돼지 사육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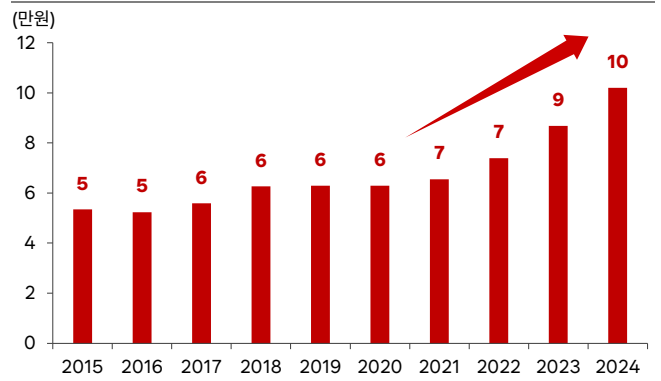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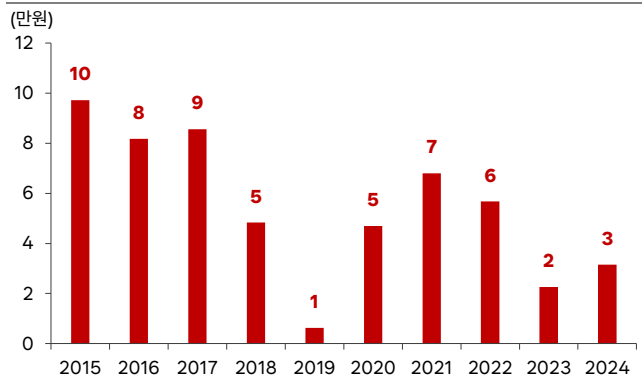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추이(사료비, 인건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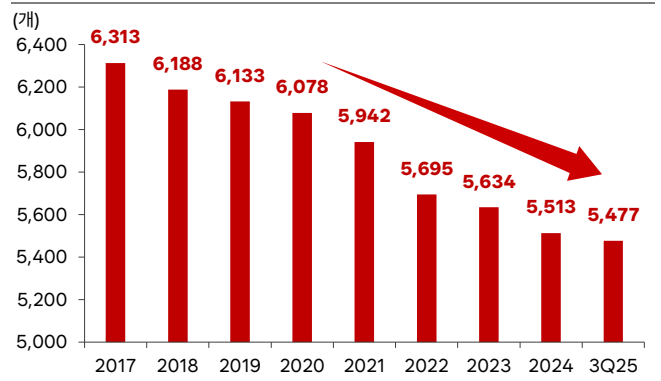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비육돈 마리당 순이익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돼지 사육 농장 수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에도 높은 돈가 수준 유지될 가능성 높음

**2025년에 이어 2026년도
2024년 대비 고돈가 환경
지속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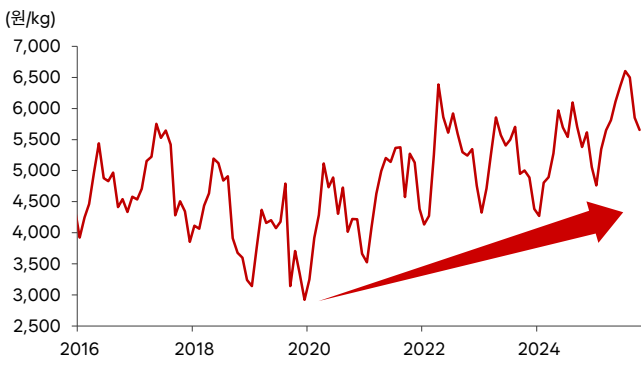
2025년 국내 돈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돼지 도매 평균가격은 kg당 2024년 5,303원에서 2025년(11월 누계기준) 5,792원으로 9.2% 상승했는데, 이는 여름철 폭염과 질병 발생(PED, PRRS 등)에 따른 공급 차질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폭염과 질병은 비육돈의 사료 섭취량 감소와 폐사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2025년 여름철을 전후로 국내 양돈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돈가 상승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다소 위축되었으며, 환율 상승에 따른 사육 원가 부담 확대는 농가들의 사육 의지 약화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25년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등급판정두수)은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다.

2026년에는 돈육 공급 물량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며, 돼지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돈가 역시 2025년 대비 안정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5년 9월 kg당 평균 6,499원까지 치솟았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10월 5,850원, 11월 5,657원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2024년 4분기부터 1,100만 두를 하회했던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2025년 3분기 들어 1,100만 두 대를 회복했으며, 돼지 등급판정두수 역시 2025년 12월 18.6만 두를 기록하며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만 2026년 돈가는 kg당 5,500원 이상의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과거 5년 평균 5,300원 수준). 단기적으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사육두수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돼지 사육에서 출하까지 약 6~7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6년 상반기까지는 공급 회복 속도가 다소 더딜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육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영세 농가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돈가는 구조적으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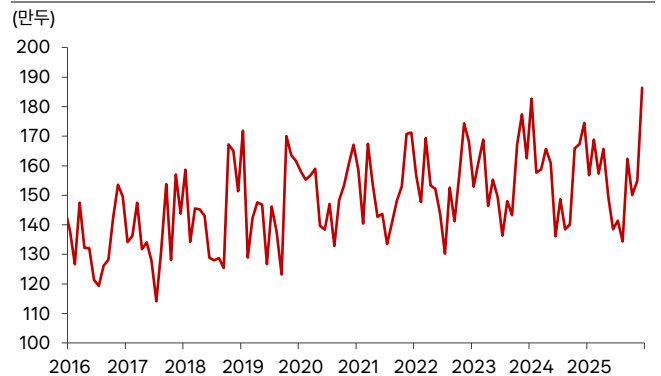
높은 돈가 환경은 동사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사육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사료(관계사 팜스토리, 이지팜스)를 비롯해 종돈·사육·도축·가공에 이르는 양돈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어 사료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전국 다수의 농장을 보유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료의 주요 원재료인 옥수수, 대두박, 소맥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등 생산국의 공급 확대가 지속되면서 하향 안정화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p.12 차트 참조). 단기적으로 기후 변화나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곡물 가격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돼지고기 월별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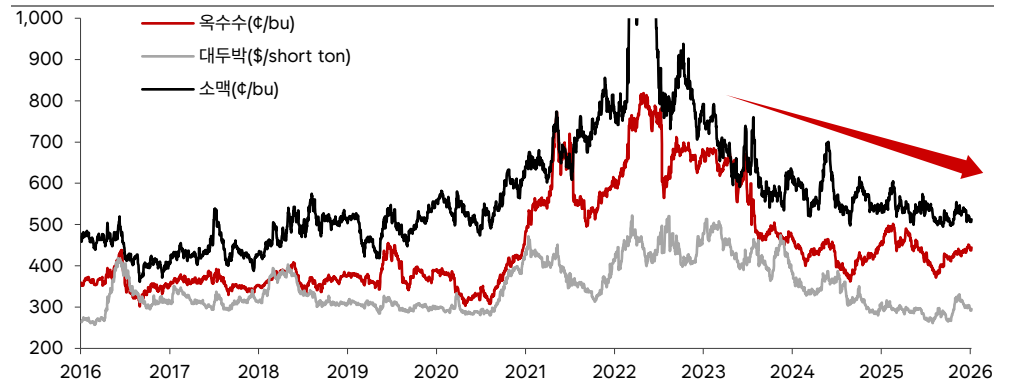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돼지고기 월별 등급판정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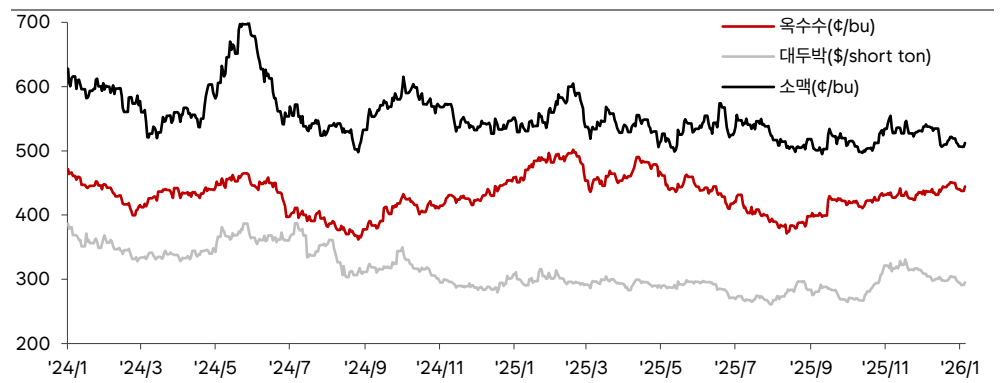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원재료 선물 가격 추이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원재료 선물 가격 추이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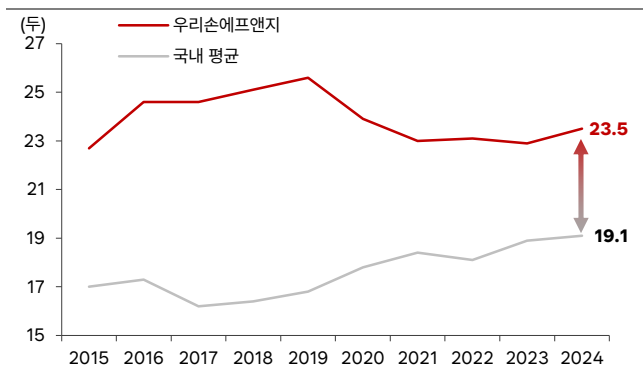
원가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에 기반한 실적 안정성

**높은 생산효율성과
원가경쟁력으로 주요 경쟁사 대비
안정적 실적 유지 중**

양돈 산업은 돈가 변동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육 기간이 길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돈가 하락 국면에서는 수익성이 급격히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양돈 업체는 상황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손에프앤지는 지난 10년 평균(2015~2024년) 영업이익률 10.3%, 순이익률 7.2%로 주요 경쟁사 대비 높은 실적 안정성을 입증해 왔다. 이는 동사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쟁력은 차별화된 생산 효율성과 높은 원가 경쟁력에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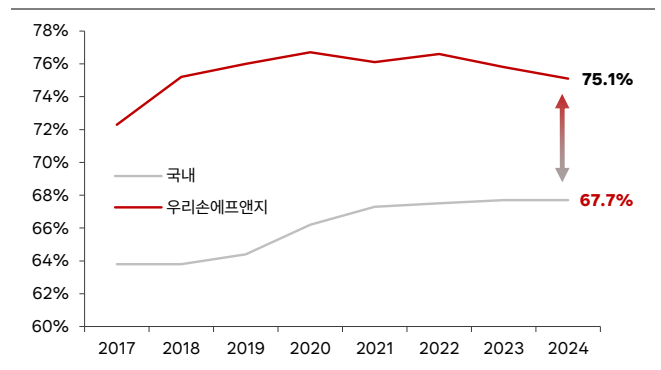
우리손에프앤지는 국내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생산성 지표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동사의 MSY(모돈 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는 23.5두로, 국내 평균 19.1두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1%로, 국내 평균 67.7% 대비 약 7.5%p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성 우위는 GGP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체계적인 유전자 관리와 수직계열화된 생산 구조에서 비롯된다. 동사는 글로벌 종돈 개량 기업인 Hendrix Genetics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국내 사육 환경과 소비 특성에 최적화된 종돈을 자체적으로 개량해왔으며 GGP 단계에서 요크셔(성장력), 랜드레이스(다산력), 듀록(육질)을 각각 순종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후 GP 단계에서 증식된 종돈은 PS 단계를 거쳐 품질이 우수한 비육돈을 균일한 품질로 대량 생산하는 구조로 연결된다. 동사는 이러한 생산 체계를 통해 높은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우리손에프앤지 vs 국내 MSY 비교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돼지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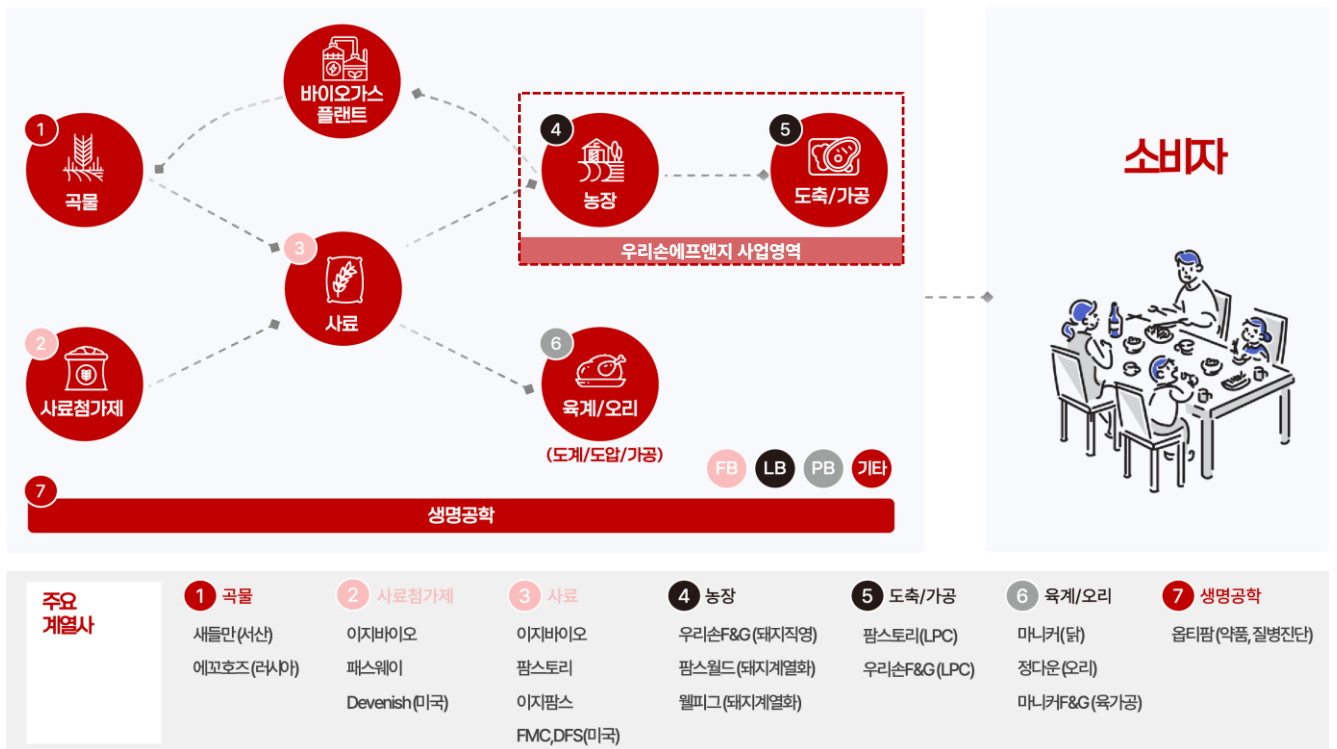
**가공유통사업을 통해 양돈사업의
실적변동성을 완화**

사료부터 사육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구조는 생산성뿐 아니라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동사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사는 관계사인 팜스토리 및 이지팜스를 통해 전용 사료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에 분포한 직영 및 위탁 농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농장별 사육 환경과 개체 성장 단계에 따라 배합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각 농장 특성에 최적화된 사료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관계사 사료 공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어 농장별로 가장 인접한 생산 거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료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2015년 흡수합병한 강원LPC를 통해 가공·유통 부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실적 안정성을 한층 강화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과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양돈업은 공급 증가에 따른 돈가 하락 국면에서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는 반면, 도축 및 가공 물량 증가는 가공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양돈 사업부의 실적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큰 돈가 변동성에도 동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중장기적으로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모회사 이지홀딩스 Value Chain

이지홀딩스는 농축산 식품의 전 생산 과정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사육 농장 위치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3Q25 리뷰 및 2025년 실적 전망

**돼지고기 가격 상승 영향으로
2025년 영업이익 전년 대비
큰 폭 성장 예상**

우리손에프앤지의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117억원(Flat YoY), 영업이익은 359억원(+17.0% YoY)을 기록했다. 4Q24부터 이어진 사육두수 감소와 2025년 여름철 폭염, 돈가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급 여건이 불안정해지며 판매 두수가 YoY 4.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육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이 영업이익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동사 비육돈과 지육 평균판매단가는 각각 YoY +14.2%, +10.8%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양돈사업과 가공유통사업 매출액은 YoY 6.6% 증가하며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다. 한편 필리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영향으로 현지 비육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필리핀 법인의 3Q25 누적 매출액은 311억원으로 YoY -27%를 기록하면서, 전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744억원(-8% YoY), 영업이익은 39억원(흑자전환 YoY)으로 영업이익은 YoY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량의 YoY 감소세가 4분기에도 이어지면서 매출은 YoY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동기대비 우호적인 판가 환경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25년 10~11월 평균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kg당 5,755원으로, 4Q24 평균 가격(5,565원) 대비 3.4%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격 흐름을 감안할 때 2025년 전사 매출액은 2,861억원(-2.2% YoY), 영업이익은 398억원(+44.4% YoY)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2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 영업이익은 2025년
대비 감소하나 돈가 역기저효과
감안, 여전히 양호한 수준**

우리손에프앤지의 2026년 매출액은 2,940억원(+2.8% YoY), 영업이익은 333억원(-16.2% YoY)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이유는 돼지 사육두수 회복에 따른 공급 부족이 다소 완화되면서 동사의 평균 판가가 YoY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매출액은 2025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비육돈 및 지육 판매량이 회복되며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3분기 기준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1,104만두로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공급지표 중 하나인 돼지 등급판정두수는 4Q25 491만두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12%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도매가격은 9월 kg당 6,499원에서 10월 5,852원, 11월 5,657원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육에서 출하까지 통상적으로 6~7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육두수 증가가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공급 회복 속도가 다소 더딜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돈가가 제한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했을 때 우리손에프앤지의 2026년 지육 평균 판매단가는 약 5,559원으로 기저가 높은 2025년 대비로는 -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 대비로는 +3% 증가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사의 2026년 영업이익은 2025년 돈가 역기저로 인해 YoY -16.2% 감소(OPM -2.6%p)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 대비로는 약 21.0% 증가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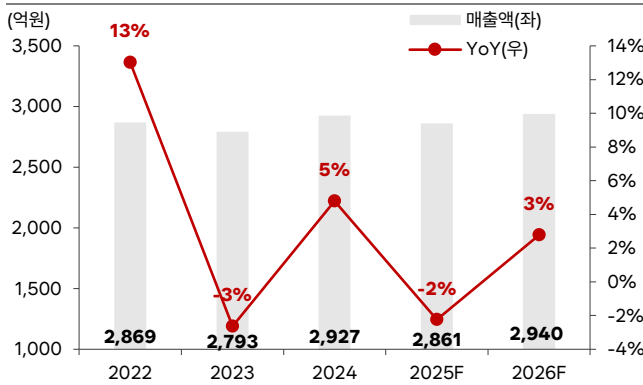
우리손에프앤지 연간 실적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869	2,793	2,927	2,861	2,940
(YoY)	130%	-2.6%	4.8%	-2.2%	2.8%
양돈사업	1,539	1,467	1,453	1,535	1,540
가공유통사업	580	561	685	668	670
기타	891	899	913	791	866
매출총이익	498	270	497	623	565
(YoY)	-13.6%	-45.8%	84.2%	25.3%	-9.3%
영업이익	285	46	275	398	333
(YoY)	-25.0%	-83.7%	494.1%	44.4%	-16.2%
영업이익률	9.9%	1.7%	9.4%	13.9%	11.3%
세전이익	319	16	186	311	253
지배주주순이익	250	15	151	257	210
(YoY)	-9.6%	-93.8%	872.5%	70.9%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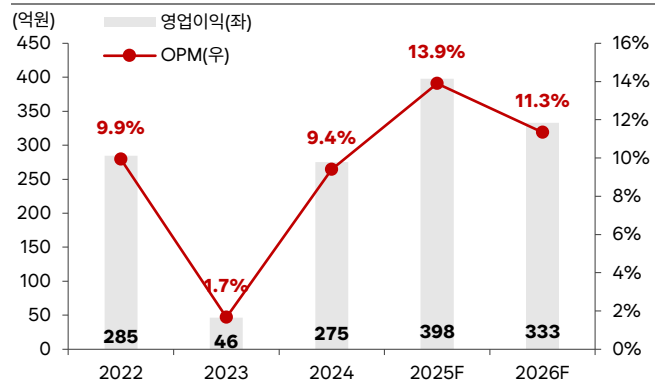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전사 연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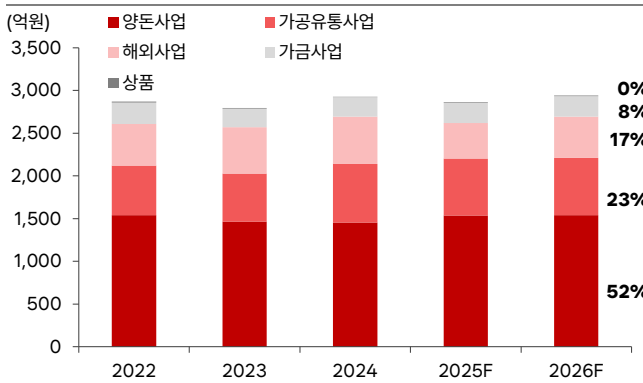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전사 연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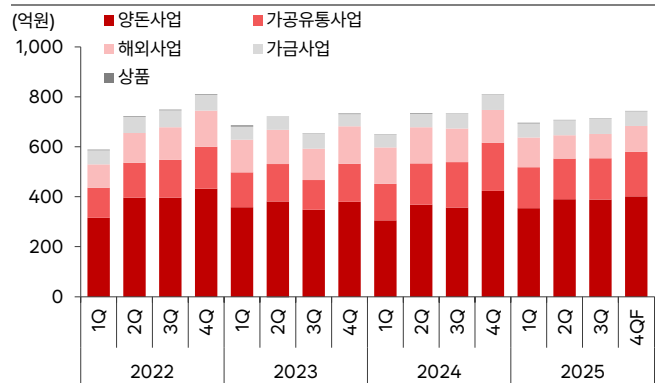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사업부별 연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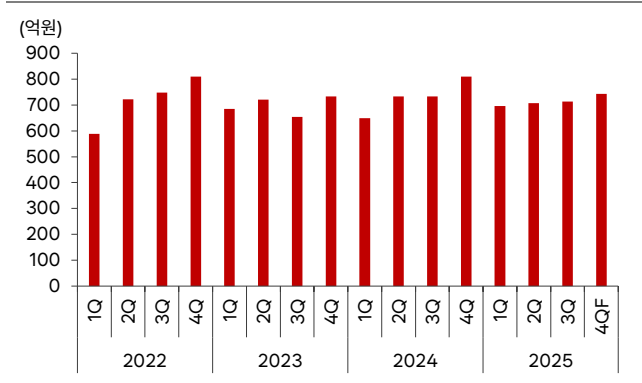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사업부별 분기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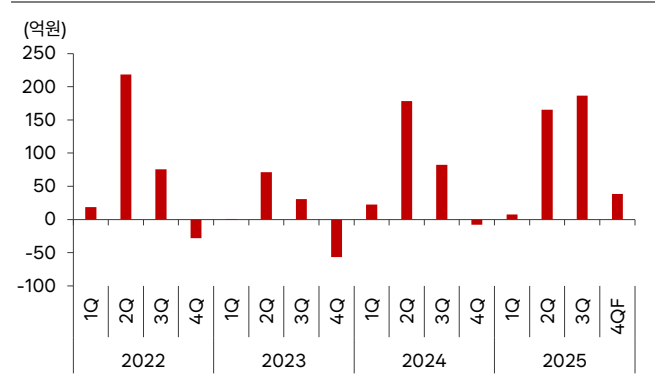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전사 분기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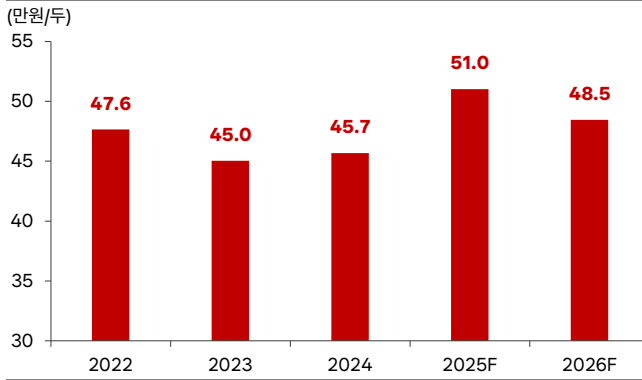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전사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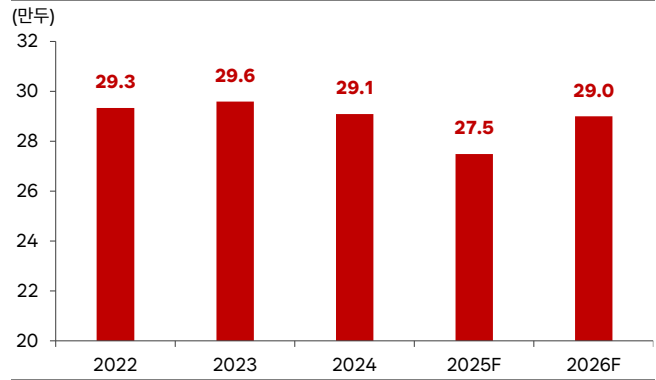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양돈사업 연간 비육돈 출하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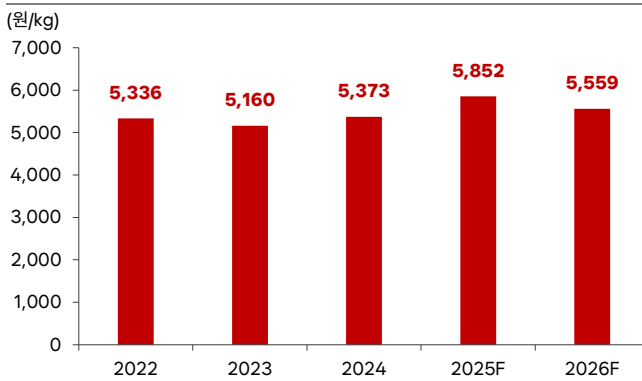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양돈사업 연간 비육돈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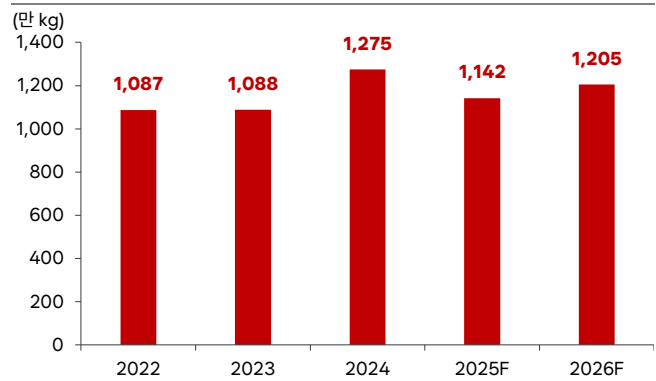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가공유통사업 지육 출하가격 추이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가공유통사업 지육 출하량 추이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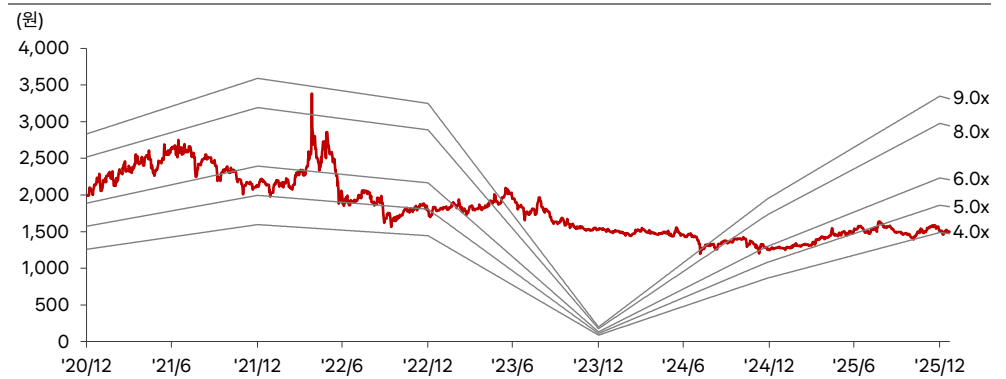
2026년 PER 5.0배 수준

**2025년 PER 4.1배,
2026년 PER 5.0배**

당사 추정 기준 우리손에프앤지의 2025년 PER은 4.1배, 2026년 PER은 5.0배이다. 2021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공급부족)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사료가격 상승) 발발 당시 돈가 상승 기대감으로 동사 PER 8배~9배 수준 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주가 조정 단계를 거쳐 최근에는 PER 4~6배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동사의 Peer 그룹으로는 국내 주요 경쟁사인 선진과 팜스코를 들 수 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현재 기준 시장 컨센서스가 부재한 상황으로, 단순한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우리손에프앤지는 양돈을 중심으로 한 내수 기반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을 Peer로 적용해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양돈 사이클 내에서의 동사의 주가 움직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손에프앤지 PER밴드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현재 밸류에이션
역사적 하단 수준에 위치**

우리손에프앤지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동사의 주가는 양돈 중심의 사업 구조 특성상 돈가의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p.20 차트 참조). 실제로 돈가가 상승 국면에 진입했던 시기에는 동사의 실적 개선 기대가 확대되며 주가 역시 우상향 흐름을 나타냈고, 반대로 돈가가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경우 주가 또한 조정을 받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동사의 실적이 비육돈 및 지육 판매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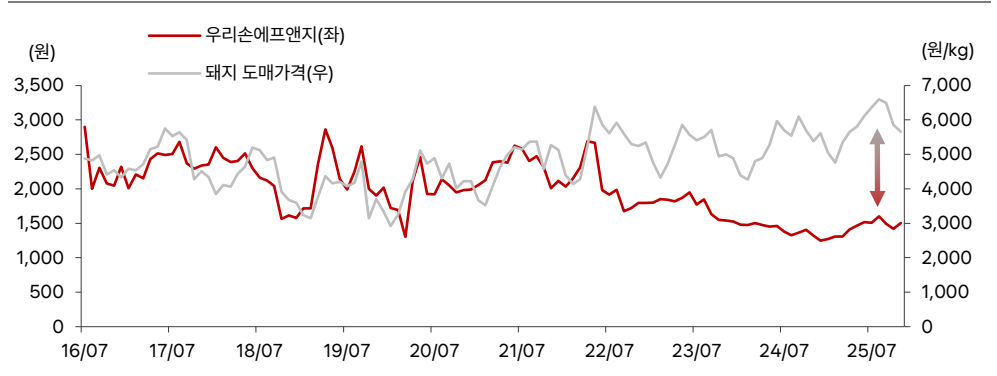
다만 동사 주가와 돈가 간의 괴리는 2022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사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곡물가가 점진적인 안정화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2022년 이전 kg당 4,000원대 수준을 유지하던 돼지 도매가격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5,000원대를 상회하며 높은 돈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는 역사적 하단에 근접한 PER 4.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양돈 산업의 비교적 높은 단기 실적 변동성,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보수적인 시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돈육 공급 구조의 변화가 동사 실적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4.1배 수준의 PER은 다소 저평가된 구간으로 판단한다. 1인당 돈육 소비량은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

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농가 고령화와 환경, 입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국내 양돈 농가 수와 사육두수는 구조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역·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 농가의 이탈이 지속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효율이 높은 기업형 농장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당사는 점진적인 케파(CAPA) 확대를 통해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당사의 사육 가능 두수는 2016년 33.7만두에서 2024년 38.7만두로 약 15%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육돈 판매두수 또한 23.5만두에서 29.0만두 수준으로 확대되었다(가동률은 유사한 수준). 현재 당사는 추가적인 케파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며, 2024년 기준 당사의 시장점유율(판매두수 기준)이 1.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점유율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손에프앤지 vs 돼지 도매가격 추이 비교



자료: Fnguide,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Peer 기업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Peer 그룹 테이블

	종가 (1/21, 원)	시가총액 (1/21, 억원)	매출액(억원)		영업이익(억원)		OPM(%)		PER(배)	
			2025F	2026F	2025F	2026F	2025F	2026F	2025F	2026F
코스닥	951.3pt	5,199,535	1,123,833	1,299,810	91,869	149,301	8.2	11.5	39.9	22.2
우리손에프앤지	1,498	1,037	2,861	2,940	398	333	13.9	11.3	4.1	5
선진	9550	2,271	18,288	-	1,704	-	9.3	-	3.3	-
팜스코	2,415	887	15,514	-	619	-	4.0	-	N/A	-

주: 25,26년 추정치 중 코스닥/코스닥 음식료및담배는 시장컨센서스, 우리손에프앤지는 당사 추정치, 선진/팜스코는 시장컨센서스 부재로 최근 4분기 합산 수치 사용, 자료: Fnguide,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리스크 요인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돈육 소비감소 리스크 존재**

최근 원달러 환율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환율 환경은 동사의 수익 구조에 점진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동사의 주요 원가 항목 중 약 60%를 차지하는 사료는 옥수수, 대두박 등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환율 상승 시 원화 기준 매입 단가가 상승하며 사육 원가 전반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전반의 상승을 동반하며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선택적 소비재 성격이 강한 외식 수요가 상대적으로 먼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도 가격 탄력성과 외식 비중이 높은 삼겹살 및 목심 등 구이용 부위를 중심으로 소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외식 채널 중심의 수요 둔화는 동사의 주요 사업인 비육돈 및 지육 판매량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ECOS,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869	2,793	2,927	2,861	2,940
증가율(%)	13.0	-2.6	4.8	-2.2	2.8
매출원가	2,371	2,523	2,430	2,238	2,376
매출원가율(%)	82.6	90.3	83.0	78.2	80.8
매출총이익	498	270	497	623	565
매출이익률(%)	17.4	9.7	17.0	21.8	19.2
판매관리비	213	223	222	225	231
판매비율(%)	7.4	8.0	7.6	7.9	7.9
EBITDA	543	324	574	692	570
EBITDA 이익률(%)	18.9	11.6	19.6	24.2	19.4
증가율(%)	-13.4	-40.3	76.8	20.6	-17.6
영업이익	285	46	275	398	333
영업이익률(%)	9.9	1.7	9.4	13.9	11.3
증가율(%)	-25.0	-83.7	494.1	44.4	-16.2
영업외손익	36	-27	-86	-83	-76
금융수익	51	48	49	53	60
금융비용	65	113	107	107	107
기타영업외손익	49	38	-29	-29	-29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2	-3	-3	-3	-3
세전계속사업이익	319	16	186	311	253
증가율(%)	-18.6	-94.9	1,048.5	67.6	-18.6
법인세비용	54	-1	30	56	45
계속사업이익	265	17	156	256	208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65	17	156	256	208
당기순이익률(%)	9.2	0.6	5.3	8.9	7.1
증가율(%)	-7.0	-93.6	811.7	64.0	-18.6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50	15	151	257	210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60	219	375	579	447
당기순이익	265	17	156	256	208
유형자산 상각비	256	277	296	292	235
무형자산 상각비	2	2	2	2	2
외환손익	0	1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01	-120	-149	12	-15
기타	38	42	70	17	17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72	-128	-267	-2	-4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0	-19	-19	1	-1
유형자산의 감소	10	64	5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503	-179	-189	0	0
기타	-259	6	-64	-3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44	119	-31	-49	-48
차입금의 증가(감소)	192	19	-3	-0	0
사채의증가(감소)	0	15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35	-35	-17	-48	-48
기타	-13	-15	-11	-1	0
기타현금흐름	-1	1	6	-14	-14
현금의증가(감소)	-269	211	82	515	380
기초현금	339	71	282	364	879
기말현금	71	282	364	879	1,260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유동자산	1,923	1,952	2,171	2,662	3,071
현금성자산	71	282	364	879	1,260
단기투자자산	914	795	770	770	770
매출채권	145	136	147	143	147
재고자산	120	103	126	123	126
기타유동자산	673	637	763	746	767
비유동자산	2,849	2,887	3,534	3,239	3,003
유형자산	2,429	2,415	3,123	2,831	2,596
무형자산	41	40	38	36	35
투자자산	173	193	217	216	218
기타비유동자산	206	239	156	156	154
자산총계	4,772	4,839	5,705	5,901	6,074
유동부채	1,691	1,521	1,668	1,661	1,670
단기차입금	1,105	1,136	1,252	1,252	1,252
매입채무	164	139	157	154	158
기타유동부채	422	246	259	255	260
비유동부채	462	721	736	732	737
사채	0	150	150	150	150
장기차입금	324	465	381	381	381
기타비유동부채	138	106	205	201	206
부채총계	2,153	2,241	2,404	2,393	2,406
지배주주지분	2,534	2,510	3,152	3,361	3,522
자본금	346	346	346	346	346
자본잉여금	359	359	360	360	360
자본조정 등	-169	-169	-169	-169	-16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4	-3	510	510	510
이익잉여금	2,002	1,976	2,104	2,313	2,474
자본총계	2,619	2,598	3,300	3,508	3,667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2026F
P/E(배)	5.0	68.3	5.7	4.1	5.0
P/B(배)	0.5	0.4	0.3	0.3	0.3
P/S(배)	0.4	0.4	0.3	0.4	0.4
EV/EBITDA(배)	3.8	6.1	3.1	2.1	1.9
배당수익률(%)	2.8	1.6	5.6	4.6	4.7
EPS(원)	361	22	218	372	303
BPS(원)	3,660	3,625	4,553	4,855	5,087
SPS(원)	4,143	4,034	4,227	4,132	4,247
DPS(원)	50	25	70	70	70
수익성(%)					
ROE	10.3	0.6	5.3	7.9	6.1
ROA	5.8	0.4	3.0	4.4	3.5
ROIC	7.9	0.8	10.4	8.6	7.9
안정성(%)					
유동비율	113.8	128.4	130.1	160.3	183.9
부채비율	82.2	86.3	72.8	68.2	65.6
순차입금비율	28.5	31.8	23.9	7.8	-2.9
이자보상배율	5.1	0.5	2.8	4.1	3.4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6	0.6	0.6	0.5	0.5
매출채권회전율	20.6	19.9	20.7	19.7	20.2
재고자산회전율	29.4	25.0	25.5	23.0	23.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우리손에프앤지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1.27	실적안정성이 부각되는 양돈기업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